

넷플릭스, 예능프로 ‘이상한 통편집’… 저작권 때문에?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실제 노래와 다른 배경음 나와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와 대조 넷플릭스 측은 공식입장 없어

#. “오늘 내가 특별히 여기서 부를게!” JTBC 예능 ‘아는형님’ 비투비 편을 시청하던 위모(32) 씨는 육성재의 민경훈 모창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창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다음 장면이 이어져 어안이 병병했다.

위씨가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플랫폼은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Netflix)’였다. 위씨는 10일 “처음에는 출연자가 무엇인가를 하려다 마는가 했죠. 하지만 실제 방송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뒤로는 넷플릭스로 예능을 보지 않는다”며 “유료 서비스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일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본방송과 다르게 편집돼 비난을 사고 있다.

아는형님 아이오아이(I.O.I) 편을 보자. 도연이 “내 파트가 어디인지 알려주

겠다”며 다른 멤버들과 노래 ‘너무너무너무’의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실제 노래와 다른 배경음악을 들려준다. 강호동의 환호 등 본방송에 나오는 현장음도 지워진 채, 춤에 맞지 않는 음악과 자막 효과음만 재생된다.

샤이니 편 역시 출연자가 춤을 출 때마다 아이오아이 편에서와 같은 현상이 이어진다. 본방송 그대로 노래가 나오는 네이버 N스토어와 푸크(pooq) 등 다른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넷플릭스의 한달 이용료는 한 명 동시 접속 서비스 기준으로 미화 8.79달러(10일 기준 9396원)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을 냈더니 이상하게 편집된 방송이 나와, 같은 프로그램을 다른 경로로 봐야할 판”이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넷플릭스의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본방송과 다르게 방영되는 이유는 라이선스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이용 약관에는 회원이 모든 관련 법률과 제한 등에 따라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데 동의한다고 되어 있다. 네이버 N스토어 등 국내 서비스 회원 약관에도 관련 법에 따라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항

목이 있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사례는 전례되지 않았다.

넷플릭스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절찬 스트리밍’이라는 구호로 유명한 넷플릭스는 세계 190개국 1억90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미디어 기업이다. ‘더 크라운’ ‘기묘한 이야기’ ‘옥자’ 등 자체 제작 드라마와 영화로 연일 화제를 모았다. ‘하우스 오브 카드’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이 에미상을 수상하는 등 자사 드라마의 작품성도 인정받았다.

지난해 4월에는 JTBC와 계약을 맺고 각종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tvN 드라마 ‘비밀의 숲’은 본방송이 끝난 즉시 해당 편을 내놓는 등 한국 콘텐츠의 전면적인 보강에도 힘써왔다. 최근에는 시트콤 ‘프렌즈’ 전 시즌 국내 스트리밍을 시작해 주목 받았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해외 항공·호텔 예약편 환불수수료 확인” “우리 토종개, 독특한 유전자로 한반도 정착”

한국소비자원, 가이드 제작·발표

#. A씨는 해외 항공권 예약사이트에서 홍콩 왕복항공권을 46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날짜를 잘못 선택해 결제 직후 환불을 요청했지만 예약사이트는 전체 금액 중 항공사에서 환불했다는 세금 8만원만 환불해 줬다.

#. B씨는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에서 8개월 후 이용할 호텔을 예약한 후 더 저렴한 호텔을 발견해 예약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상품 계약시 ‘환불불가’ 표시를 확인하지 못해 해당내용을 재확인해보니 마우스 커서를 대었을 때만 영어로 환불불가 사항이 별도 안내창으로 작게 나타났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B씨의 항의 며칠 뒤에 한글로 ‘환불불가’ 메시지를 뜨도록 사이트를 수정했다.

최근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한 후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피해에서부터 항공편 운송 지연, 호텔 이용 불가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항공·호텔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5년 2454건에서 2016년 3144건, 2017년(11월까지) 464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피해유형, 예약 단계별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을 정리한 ‘해외 항공·호텔 예약가이드’를 제작·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약가이드는 해외 항공·호텔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기획됐으며, 인포그래픽을 이용해 리플릿(28p) 형태로 제작됐다. 한국관광공사, 해외 항공·호텔 예약 사이트 등에서 소비자 피해예방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며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여행 계획 시 ‘해외 항공·호텔 예약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국제거래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정보를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진돗개·풍산개·경주개동경 등 특대·코요테의 유전자형 많아

진돗개, 풍산개, 경주개동경이 등 우리나라 토종개의 뿌리는 야생 늑대를 공통 조상으로 기원했지만 각각의 독특한 유전적 다양성을 갖고 한반도에 정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촌진흥청은 10일 2018년 무술년 ‘황금 개의 해’를 맞아 한국 토종개와 야생·고대·현대의 개 33품종 2258마리의 유전체 분석결과를 비교·발표했다.

농진청은 개의 DNA에 존재하는 유전자형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유전자 칩을 이용해 개의 전체 유전체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우선 한국 토종개는 중국 개, 일본 개와 더불어 고대 개 품종들과 유전적으로 비슷했다.

하지만 현대 품종들과 비교한 결과에서는 진돗개, 풍산개, 경주개동경이 3품



풍산개(왼쪽부터), 진돗개, 경주개동경이.

/농촌진흥청

종의 유전적 근연 관계가 매우 가까웠고 외국 품종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한국 토종개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집단을 구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한국 토종개는 다른 외국 개 품종에 비해 특대·코요테의 유전자형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는 한국 토종개들이 야생성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토종개 중 야생 늑대의 유전적 특징은 풍산개, 경주개동경이, 진돗개 순으로 더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분석 과정에서 한국 토종

개들의 유효집단크기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보호·육성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집단크기가 작아질수록 그 집단은 근친도가 높아지고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진다. 유효집단크기가 50마리가 되면 멸종위기종에 가까워짐을 뜻한다.

현재 한국 토종개의 유효집단크기는 진돗개 흑구 485마리, 진돗개 네눈박이 262마리, 풍산개 백구 110마리, 경주개동경이 백구 109마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영동3교 보강 완료… 40t 중차량 통행 가능

11일부터 서울 영동3교에 40t 중차량이 다닐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011년 5월부터 30t 초과 중차량 통행을 제한해 온 영동3교에 40t 차량 통행이 가능해진다고 10일 밝혔다.

영동3교는 1986년 12월 폭 40m, 길이 160m로 건설된 왕복 8차로 교량이다. 분당 내곡간고속도로와 성수대교를 이어준다. 양재천을 가로질러 강남구 개포동과 도곡동을 연결한다.

서울시는 2011년 긴급안전진단 결과 영동3교를 통행하는 중차량으로 인해 내구연한이 저하되고, 노후로 인해 교량 상판 간격이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같은해 5월부터 중차량 통행을 40t에서 30t으로 제한해 왔다.

시는 영동3교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2011년 5월~2012년 5월 하류측 교량 보수보강을 마쳤다.



영동3교량 전경.

/서울시

지난해 6월~10월에는 상류측 교량 보수보강을 완료했다. 이후 정밀점검 결과 안전등급 B등급을 판정받아 이번 통행제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그동안 영동3교 중차량 통행제한에 협조해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범종 기자



“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감면받으세요”

서울시는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10일 밝혔다. 보통 자동차세는 1년 치를 6월·12월에 나눠서 납부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받는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려면 이달 12일

부터 우편 발송되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 모바일 STAX를 활용하면 된다.

최초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구청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계좌이체 해야 한다. 전자납부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인터넷으로 납

3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10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의 전광판이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 30일 전을 알리고 있다.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가 전광판을 가리고 있다. 평창 올림픽은 다음달 9일~25일 17일간 열린다.

/이범종 기자

부해도 된다. 이번 달에 미리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7천270원, SM5는 5만1천950원, 그랜저는 6만2천3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지난해 1월엔 서울에서 107만여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3만1천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서울시는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 세금을 낼 수 있는 ‘ETAX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범종 기자